

저성장 탈출의 조건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한국 경제가 좀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작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5%를 기록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2007년 경제는 다시금 4%대 초반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되어 호황기가 1년을 넘지 못하는 경기 사이클의 단기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 유력한 것이다. 국내 경제가 하루속히 저성장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럴 경우에 국내 정치 사회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성장 잠재력이 보다 더 약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저성장의 악순환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경제는 적어도 한 10년간은 5%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는 심각한 청년 실업과 같은 고용 부진 등에 의한 경기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령화와 남북 통일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통일 재원을 확충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미래 성장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전은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원대한 꿈은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 울산 앞바다의 모래 사장을 바라보며 세계 최대의 조선소 건설을 상상하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당시로서는 생소하기 그지없는 반도체에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지금에도 절실히 요청된다. 희망에 찬 꿈이 존재하는 경제를 만들려면, 성장주체인 기업들의 창의력과 모험적 기업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고도성장기는 정부, 기업, 근로자들의 유기적 협력 관계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유능한 정부 관리들의 효과적인 자원 동원과 통제, 의욕이 넘치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 근로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어우러져 한국 경제는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충과 효라는 유교 가치가 존재한 점도 정신적 공감대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토록 하여 국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붕괴된 고도성장기의 경제 발전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품고 있는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부, 기업, 노조 그리고 NGO들이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성장 자원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창출한 경제 성장 신화는 쓸만한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척박한 초기 경제 발전 여건 속에서 우수한 지적 능력을 지닌 인재들의 열정적인 헌신에 의한 것이었다. 국내 인적 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한국의 어린 자녀들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아닌 피지, 남아공처럼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낮은 오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평균 수준의 학습 능력만을 키우는 지금의 안일한 교육 체제 때문이다.

네 번째는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 복지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화합하여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법치 질서를 확립하고 의식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실역행의 리더십을 사회 각 분야에서 확립하는 것이다. 공론을 회피하고 실용을 중시하며 사리보다 공익을 앞세워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리더들이 각 분야에서 서 갈 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